창간 39돌 특집 마당

창간 39돌 개교 45주년 기념 축사

총 장

공 영 일
(총 장)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제2도약기 준비

5월18일. 경희가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고황산 중턱에 초석을 세운지 45주년이 되는 날이며 아울러 5월12일은 경희역사의 산 증인이며 대학인론의 양심을 간단없이 지켜온 대학주보의 창간 39돌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개교당시 3개학과, 정원 1백50명에 불과하였던 우리 대학이 오늘의 서울, 수원, 광릉의 3개 캠퍼스에 재학생만도 2만명이 가까운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내적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여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물론 취업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연구를 활성화하여 학계에서 주목받는 다수의 업적을 이룩한 교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을 위한 각종 합리적 제도 등을 앞서 실천함으로써 명실공히 사학명문으로 자리매김 된 것은 우리나라 교육사에 일찍기 없었던 빛나는 업적을 이룬 것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이는 구성원 모두 학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발현된 결과가 이룩한 업적으로 이자리를 빌어 모든 경희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교이래 중단없이 앞만보고 달려왔던 경희의 기상이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일시 꺾인적도 있었으나 오로지 경희정신과 다른대학에서 볼 수 없는 가족정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된 것은 우리 경희인 모두의 응집된 힘의 결과라 믿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있게 하나로 모았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21세기 대학이 처할 수 있는 사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식되어져 왔던 대학관, 교육관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국제화, 개방화로 국가간, 인종간의 장벽은 사라져가고 경제논리에 의한 부의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부의 축적에 따라 국가의 우열이 가려지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학 역시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변모하지 아니하면 도태되고 마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창의적인 비전의 제시와 이를 실천하는 구성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여부가 결정되는 경쟁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교 4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경희인 모두는 경희의 지난 역사에서의 찬란한 업적을 계승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주역이 되기 위해 자신의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그날, 다같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대학주보 창간 39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학의 정론을 세우며, 대학의 자존을 지키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대학주보동문회장

이 광 재
(대학주보 동문회장
·본교 신방과 교수)

창의 번득이는 미래적 언론 구현하길

경희의 발전과 함께 그 역사의 증인으로서 끊임없는 창조력의 맥동(脈動)인 대학주보의 창간 39주년을 맞아 뜨거운 가슴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대학주보의 주간 이하 학생기자들과 그리고 39년의 긴 시간동안 결결이 인내의 역사를 쌓아온 역대 주간교수와 동문기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신문이 대학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먼저 대학신문은 전 구성원들에게 대학사회의 정보를 골고루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신문의 고유기능으로 그 주요독자가 대학인인 만큼 대학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적절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학당국과 학생, 교수, 직원 더나아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고리'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신문의 기능 중 하나는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대학신문만이 가지는 장점으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기능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사회현상을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닌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된 사회입니다. 이는 국제화 감각이 없는 사람이나 접단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주보 또한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은 계승하되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신문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학의 사명이 과거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 보전시키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의 참다운 의지와 정서를 함양시켜 폭넓고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여 지성과 양식, 그리고 질서를 사랑하고 책임과 의무를 존중할 줄 아는 인간육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교훈앞에 우리는 숙연한 자세로 반성할 줄 아는 양심과 미래를 향한 견전한 자기의지를 통해 다가올 날의 시행착오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바랍이 있다면 젊음이 넘치고 창의적인 발상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섬광과 같이 빛나는 글들이 자주 게재되어야 하고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 양자가 조화되는 시사성있는 글들이 많이 실렸으면 합니다.

대학주보를 거쳐간 동문들이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대학주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합니다. 현역기자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대학주보 제작에 정진해주기 바랍니다.

학원장

조 영 식
(학 원 장)

미래 신문명 개척에 선구자적 역할 기대

영광스러운 개교 45주년과, 대학주보 창간 39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경희가족과 함께 이 큰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경희의 지난 45년은 오직 '하면 된다. 해내야만 한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빛나는 역사이며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낸 기적의 대약진이었습니다.

2년제 가인가 초급대학에서 오늘의 대종합학원을 이룬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 아래 우리가 조국을 위해, 세계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궁리하며 선구적인 역할을 다해왔음은 참으로 값진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모두가 펼쳐 일어났던 문맹퇴치운동, 농촌계몽운동, 잘살기운동은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지며 민족갱생의 터를 마련해 주었고 밝은사회운동으로 건전한 인류사회구현의 길잡이가 되었음은 물론 국민화합운동으로 이질화된 국민감정을 하나로 묶는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세계평화의 날과 평화의 해 제정으로 꽃을 피운 세계평화운동은 냉전의 벽을 허물고 신화해시대의 문을 여는 키의 역할을 하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세계최초로 세계평화기에 큰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경희는 지난 45년의 영광을 뒤로 하고 새롭게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며 희망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하여 개방화, 국제화, 민주화, 인간화의 시대적인 조류는 우리대학사회에 수많은 난관을 안겨주고 있지만 '절대위기는 절대호기'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과거의 우리가 그러했듯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제2의 창업의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제 우리는 도다시 명문 경희, 세계유수의 경희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 동북아시대에 우리 한국이 세계문명의 중심에 서서 문질문명의 폐해를 일소하고 인간성 회복과 도덕재건을 위한 제2의 르네상스의 횃불을 높이 드는데 대시 한번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것이며 여기에 모든 경희인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하며 마지 않습니다.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경희가족의 건강과 창간 39주년 대학주보의 무궁한 발전을 참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학교연혁

▲1949년 2월15일 배영대학관을 모체로 재단법인 성재학원 설립

▲1949년 5월12일 신흥초급대학(2년제) 가인가로 설립(영어과, 중국어과, 국문과)

▲1951년 5월18일 조영식 박사 재단인수, 이사장으로 취임

▲1955년 5월12일 신흥대학보 창간

▲1957년 7월24일 교시탑 준공

▲1961년 3월21일 경희국민학교 건립인가

▲1967년 3월6일 자유중국 문화학원 대학과 자매결연

▲1969년 2월20일 공과대학 신설

▲1971년 10월5일 경희의료원 개원

▲1974년 1월20일 한국최초로 한의학박사과정 신설

▲1980년 3월8일 수원캠퍼스에서 첫 입학식 거행

▲1983년 10월29일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인가

▲1985년 1월10일 제6대 박양원총장 취임

▲1987년 8월1일 수원캠퍼스 부총장 이영재교수 취임

▲1988년 1월18일 조영식 이사장 제7대 총장으로 복귀 취임

▲1990년 11월6일 수언캠퍼스 신문방송국 개관, 대학주보 편집실 신문방송국으로 이전

▲1994년 5월18일 개교45주년

대학주보연혁

▲1955년 5월12일 '신흥대학보'라는 제호로 창간. 前 보건소건물에서 매월15일과 30일 발행. 초대 주간 이원우교수, 편집국장 이규종교수.

▲10월10일 제8호로부터 월2회 발간에서 순간(旬刊)체제로 변경, 편집실 가교사로 이전후 편집국 설치(편집부, 업무부, 조사부로 분리)

▲1960년 3월25일 지령100호 발간. '경희대학주보'로 제호변경. 발간부수 1만부로 확대

▲6월30일 106호부터 지금의 제호인 '대학주보'로 변경

▲1965년 3월 대학주보·방송국·영자지 통합 신문방송국으로 개편

▲1982년 매주 8면체제 정착

▲1984년 4월2일 지령800호를 발행하면서 현행과 같은 '가로쓰기신문'도입

▲5월5일 단행본 '상황인식과 우상파괴'발간

▲1990년 11월6일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 이관

▲1994년 5월12일 창간39주년

동창회장

이 병 희
(동창회장)

건실한 여론이 숨쉬는 산실로 거듭나야

신문을 가르쳐 흔히 그 시대의 '거울'인 동시에 그 사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주보는 우리대학의 거울이요 얼굴인 셈입니다.

이러한 대학주보가 창간 39돌을 맞았으나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창간기념일은 우리대학의 연륜과 역량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대학주보의 빛나는 전통을 세우는데 정진해 온 대학주보 동문들에게 치하를 보내며, 현재 제작에 임하고 있는 현역기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본교가 설립된지 6년만인 1955년 5월 12일에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와 이념 아래 창간된 대학주보는 오늘날의 경희가 있기까지 등고동락을 함께 해 온 산증인이요 진실주요자로서 빛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주보는 또한 경희가 범세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 등에 있어서도 메신저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세계로 웅비하는 경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학신문은 대학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일차적인 독자대상이 경희인이라는 범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발간되는 대학신문은 그 대학의 창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대학이 계승해 나가는 정신을 대학인 모두에게 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나아가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한 건의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학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제공하여 대화를 통한 인화단결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주보는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관 속에서 우리의 시설과 사고의 편벽을 깨워주는 장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학주보가 대학의 학문적 특성과 지혜를 골고루 흡수하여 우리의 값진 재산으로 일구어 놓은 역사를 지난 39년의 지면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대학주보를 만드는 기자나 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학주보가 경희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의 의견이나 이익만을 존중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결국 다른 한편의 이익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함께 존중되는 보편 타당의 원칙 아래에서 대학주보는 모든 경희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여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주보사가 93학년도 졸업생들에게 배주 발행되는 대학주보를 발송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년4천여명의 동문과 함께하는 대학주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이(驚異)의 역사인을 제2도약기

"21세기를 준비하는 경희의 힘찬 발걸음"

우리 경희인들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며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그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아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불퇴전의 경희정신이 하나만으로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오늘의 경희를 이룩해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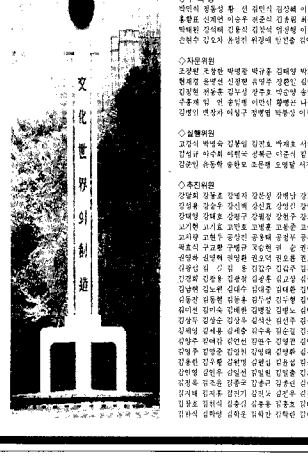
오늘의 경희를 가리켜 해외언론에서는
'극동 교육사의 기적'이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위대한 경희를 그리며
'제 2의 웅비'를 준비할 것입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
경희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하나의 벽돌이 되어 경희의 명예를 지킵시다.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기금과 경희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강당 완공을 위한 모교 발전기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희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 010-01-0618-642
신탁은행 : 17301-2710-209
농 협 : 031-01-396171
우 체 국 : 012336-0025556
(예금주는 각 계좌별 공히 '경희대학교'입니다.)



◇명예고문
안호상 유치영 최태섭 이규종 방정희 소부근 서경심

◇고 문
공영일 안치범 윤해석 박양원 최두고 김성경 김성경 유홍근

◇회 장 : 이병희

◇부 회 장
박인서 방동섭 홍 신 김인식 김상혁 이건수 선학철 이 동 송양상 이태복 선동우 홍한표 신재연 이승주 변윤식 김홍희 최홍덕 박홍근 남기신 김창주 김동원 홍재구 박재홍 김덕수 김동식 김기홍 김기호 박순창 송인재 김상선 김기홍 이일선 한동명 이준석 황홍후 최 동 조홍제 김 진 윤일형 이인선 김덕준 김기홍 김기홍 김기홍